

민주 오늘부터 경선 토론회 ‘진검승부’

총 10차례…文 정책능력·安 인간미·李 선명성 전략

후보간 단점 돌파 능력 관전…安·李 2위 싸움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3일부터 10차례 합동 방송 토론회에 나서 ‘진검 승부’를 벌인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세론’의 장벽을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토론회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 3인3색의 전략=문 전 대표와 안 지사, 이 시장 등은 토론 준비에서부터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이 토론본부장을 맡고 각 의원실에서 토론을 전달하는 보좌진이 합류해 토론 준비도 ‘매머드급’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안 지사 측에서는 별도의 팀을 꾸리기보다는 캠프에 합류한 윤태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중심으로 실무 팀장급들이 모여 과거 정책 등을 살피고 있다.

이 시장도 정책 자문 교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토론 전략 역시 위치에 따라서 각양각색이다. 1위 주자인 문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의 집중 공세를 예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지사의 경우,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공격보다는 정책 능력과 함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이더’ 화법으로 주목받아 온 이 시장은 특유의 말변과 명확한 방향성 등을 내세워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며 역전의 발판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 장단점 공략=예비 후보들마다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표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

조하고 있지만 콘텐츠 전달 등 정치적 수사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안 지사는 예비후보를 가운데 가장 안정감을 주는 주자로 꼽히지만, 최근 ‘대연정’과 ‘선의’ 등의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집중 공격을 받을 우려도 있다. 말이 사변적이고 어려워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 시장은 뛰어난 달변이 강점이지만 자칫 너무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 이진투구 가능성=지금까지 주자들이 참가했던 ‘네거티브전’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문 전 대표, 안 지사,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일정(계획)	
3월 3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토론회
6일	인터넷방송 오마이 TV토론회
14일	지상파 4사+YTN 합동토론회
17일	종편 5사 합동 토론회
19일	KBS 토론회
21일	MBC ‘100분 토론’
24일	호남권 토론회
26일 (또는 27일)	충청 토론회
28일 (또는 29일)	영남 토론회
30일	수도권 토론회

‘아름다운 경선’을 앞세워 서로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삼가왔다.

‘대연정 논란’, ‘공짜 밥 논쟁’ 등이 불거

지긴 했지만 대부분 정제성이나 정책노선을 둘러싼 공방이었지, 인신공격성 발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한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게 된 만큼, 격렬한 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전을 노려야 하는 주자들의 경우, 이번 토론회에서 민심에 강력한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의 ‘2~3위 연대’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들로서는 1차 투표에서 문 전 대표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야만 2차 투표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다.

문 전 대표에게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서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거나 ‘ 띄워주기’를 통해 연대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위 자리를 놓고 안 지사와 이 시장이 격렬한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외국민 대선 참여 허용’ 통과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안희정 ‘대연정’ 놓고 다시 신경전

安 “개혁 동의하면 한국당과도 손잡아”…文 “적폐청산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2일 대연정을 놓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지금은 적폐청산이 우리 국민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지상과제인데, 적폐세력과 손잡는다면 어떻게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의 ICT(정보통신기술) 현장리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개혁과제에 합의한다면 자유

한국당과도 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대연정 소신을 거듭 밝힌 것과 관련, “탄핵과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세력과 이 단계에서 손잡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분열 극복과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것은 탄핵이 끝나고 적폐를 제대로 청산한 토대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국민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가는 노

력을 해야 한다. 자부터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대연정 제안과 관련, “개혁과제를 놓고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자유한국당이든 누구라도 좋다”며 “원내에서 어떤 범위로 연정 다수파를 꾸릴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개혁과제에 동의하면 원내 교섭단체 누구든 협상할 수 있다”며 본인의 대연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안 지사는 “제가 (후보로) 당선이

된다면 당 대표에게 연정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 단위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당의 정당정책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느정도 타협할지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본다”며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묶어 의견을 확대하는 것에는 문 전 대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정당은 넓고 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지금 청년은 기존 세대보다 희망과 꿈이 사라진 암담한 세대다.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급해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국민의당 험난한 경선을 합의

현장투표 관리 놓고 의견차…일정 지연 우려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룰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선 룰 TF 팀장인 이용호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완전국민경선에 따른 현장 관리 방안을 문서로 담보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런 문제 제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후보 진영에 입장 변화 있을 때까지 협상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날 오후 물 밑 접촉에 나서고 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각 대선주자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9차 경선 룰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안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 40%·여론조사 30%·공론조사 30%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은 사전 선거인단 모집 없이 현장투표

100% 방안을 주장하면서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에 안 전 대표 측은 손 전 대표 측이 주장한 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위의 위탁 경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이 현장투표를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처럼 불협음이 애초 마감 시한을 이틀 넘기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체 경선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법재판소가 10일 탄핵 인용을 한다고 가정하고 본선 기간과 준비 기간을 빼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은 2주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의 결단이나 당 지도부의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박지원 대표는 “막히게 있으면 뚫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중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누군가 태극기집회 돈 지원”

“2차례 6억 모금·전국적 버스 동원…朴 사퇴 가능성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일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어느 세력인지 모르지만 태극기집회에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 “태극기집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태극기 집회 당일에 첫 번째 했을 때 2억이 모금됐고 두 번째 집회할 때는 4억이 모금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버스 동원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나. 실제로 전남에서 고영태 (전우회) 200명이 버스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민의의 발로인지 관제의

발로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설에 대해선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술수가 높은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격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인용을 당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사퇴해버리면 바로 대선정국으로 돌아가지 않나. 대선정국이기에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두 달을 벌면서 소위 친박(친박근혜) 보수층을 단결시키고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영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사업비 사업자가 부담”

송기석 개정안 국회 통과

공영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사업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법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학교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 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혁신도시 등 공영개발지구의 학교용지 사업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영개발지구내 학생의 학습권 보강,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신설학교의 용지 확보, 학교 설립 등과 관련한 개발사업의 범위 등을 명시했다.

송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공영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公國
認家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471)	광주교육대학교(1571)
개강일시	·국요일 오전반:2017.3.3(금) 08:3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2017.3.4(토) 08:3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2017.3.6(월) 14:3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2016.3.2(목) 08:3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2016.3.4(토) 14:3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18(수)~3.4.(토)	2017. 1.18(수)~3.4.(토)
수업기간	2017. 3.3.(금)~2017. 8.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2.(금)~2017. 8.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배특기회 부여)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배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8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8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w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8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전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전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래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온열뜸기, 아류법, 금뜸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래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래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